변화를 만드는 교육의 힘,

5차원 전면교육 원동연 박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이하 세계관동역회)에서 활동하는 회원들 중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전공과 비전을 살려 기독교세계관을 펼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번 WORLDVIEW에서는 5차원 전면교육을 통하여 교육의 새로운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원동연 박사를 소개한다.

가족소개와 현재 섬기고 계신 교회에 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은 저와 아내,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83년도 원자력연구소에 근무한 이래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대덕교회의 장로로 섬겨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서울로 올라와서 동숭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동역회 사역은 언제부터, 그리고 어떤 인연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1978년도부터 KAIST에 다니고 있을 때 창조과학 운동과 기독교세계관 운동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 함께 KAIST에 다니고 있던 몇 몇의 동지들과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대학을 세우자는 꿈을 가지고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를 설립하게 되면서 이 사역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박사님의 5차원 전면교육학습법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으며 최근 서울시 교육청의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으로 채택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본래 과학자이셨는데 전공분야보다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중국의 연변과학기술대학교 부총장으로 간 후 교육의 본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데 그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지, 어떻게 해야 변하게 되는지 고심하다 그 해답을 나름대로 찾게 되었습니다.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씨도 있어야 하지만, 밭도 좋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열심히 가르치고 아울러 배움을 통해 씨를 뿌리려는 노력은 많지만, 씨가 뿌려지는 밭에는 큰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해도 학생들이 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밭을 바꿀 수 있는 방안으로 5차원전면교육을 정립하게 된 것입니다. 5차원전면교육이란 밭을 바꾸기 위해서 인간의 전인격적인성인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능력, 인간관계능력의 5가지를 바꾸어 주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런 5차원교육을 교육 현장에 접목하면서, 기적 같은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중국 연길의 초등학교에서는 10개 반 중에 꼴지 밖에 못하던 반이 1년 만에 1등이 되기도 하고, 몽골에서는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은 모아 놓

은 학교에서 1년 만에 일반학교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으며 한국의 세인고등학교에서는 교육을 포기한 학생들을 모아서 교육을 했는데 3년 후 92%가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과학자였기 때문에 한번 시작한 교육의 실험을 도중에 멈출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가를 분석하고 결론을 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96년에 시작한 과제를 아직도 하고 있으니 이미 15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5차원 전면교육학습법에 의한 세인고 설립이후 몽골국제대학교 등 제3 세계 해외대학 설립 등의 사역으로도 많이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신 사역은 무엇이며 이 사역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인고등학교 이후 몽골국제대학교의 설립, 동두천고등학교에서의 적용, 벨 국제학교의 설립, 라오스국립대학교에의 적용, 미국 DIA대학교의 설립, 최근 탄자니아종합대학교의 설립 추진까지 지난 15년간 6개의 나라에 9개의 학교를 직간접으로 설립하고 운영하여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학교설립에 관심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학교설립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한 학교에 집중해서 그 학교를 크게 성장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 학교를 세우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교육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이란 보편성을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되는데 후진국에서는 안 된다던가, 사상이 서로 다른 곳에서는 안 된다면 보편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나라에 이 교육을 접목하면서 그 보편성을 찾아왔고 이제는 5차원 전면교육의 보편성을 어느 정도 입증했다고 봅니다.

최근에 초중고등학교 뿐 아니라 대학, 유치원등에서도 이 교육을 적용하려는 학교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은 5차원전면교육의 보편성에 대한 신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교육, 학부모교육을 강화하여 한국의 경우 2012년 까지 2만 명의 교사교육, 1만 명의 학부모교육, 100개의 5차원전면교육기관을 육성하는 목표로 사역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5차원 전면교육 사역이 세계관 운동과 어떤 맥락에서 연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차원전면교육은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좋은 지식과 진리를 알게 된다고 해도 밭이 좋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마태 13장)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뿌리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면(지력),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심력),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없으면(체력) 열매를 맺지 못함을 지적합니다. 더구나 마가복음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언급하면서 이 부분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To love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understanding and with all your strength, and to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이 구절로부터 마음(heart), 지혜 (understanding), 힘(strength), 자기관리 (self-management),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relationship)의 5가지의 요소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장애물들을 제거 할 수 있는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능력, 인간관계 능력의 5가지 훈련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밭이 개간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삼십 배, 육십 배, 일백 배의 열매를 맺어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교육으로서의 5차원전면교육의 한계적 범위를 명백히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5차원전면교육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5차원전면교육을 통해 잘 가꾸어진 밭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성령님을 통해 이 씨앗이 열매를 맺는데 까지 성장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관동역회에 바라는 것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멋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세계관동역회가 하나님이 섭리에 의해 세워졌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긴장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노력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민감해야 합니다. 수많은 회원들이 20여년이 넘게 수고해 왔습니다. 이제 때가 이르러 열매가 나올 것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길 기도합니다.